



오늘은 자옥, 수정, 소연, 숙현, 현정 모두들 돌며 있다. 덕포진으로 떠난 오랫동안의 나들이를 구실삼아 실력들을 뽐냈다. 『뽀빠의 여인』 노랫가락에 맞춰 율동을 만들고, 노란 장식을 단 까만 옷을 똑같이 맞춰 입었다. 수수가 옷 빗값을 제대로 맞춰 입지 않고 나타날까봐 모두들 조마조마 했다. 새파란 진디, 그 언덕 너머로 덕포진의 바다가 살짝살짝 내비쳤다.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져 본 것일게다. 오래전, 기억에 담아둘 기회조차 없었던 어린 시절의 학에 회처럼. (99년 10월 6일)

부산에서 영화가 올라 왔다. 인터뷰를 부탁했을 때, '한소리회 부탁이니' 꺼리며 단 한마디로 허락을 하던 영화. 서울역에 마중을 가보니 제 손으로 만든 예쁜 종이꽃다발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뭐가 제일 힘들었나? 뭐가 거기서 생활할 때 너를 가장 힘들게 했나? 영화는 씩씩히 웃더니만 '배고픈 거라고 말을 한다. 배고픈 거' 카메라를 잡고 있던 이나 질문을 던진 나나 그 뜻밖의 답에 흠칫 놀라고 말았다. (99년 11월 1일)

여성들은 이 작업을 함께하며 물빛을 달아갔다.
떨리는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첫 제작위원회에 참여하던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소리회 인물

김지현, 김미리, 김기화, 김남주, 김도은, 김상숙, 김수연, 김연지, 김연진, 김현, 김정은, 김유신, 김정자, 김주혜, 박달혜, 나미진, 박은주, 박동우, 박향은, 박재희, 서울염상집단, 송상훈, 신리, 최선복, 수, 손나미, 김, 문정환, 이기문, 이현우, 이효지, 임건영, 원미혜, 장상하, 정고미라, 정은주, 현시, 황, 최찬권, 홍은희

One Voice for the Eradication

한소리회는 매매춘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이며,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매춘여성들의 권익(權)의 목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995년 매매춘 근절을 고민하는 여러 지역의 실태와 개인적 모임을 시작으로 매춘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활동을 위한 상담과 교육, 매매춘 연구 및 자료 발간, 또한 소리내고 힘 모으는 일을 합니다.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One Voice for the Eradication of Prostitution in Korea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2가 36 기사연빌딩 303호
전화 02-3147-1505
e-mail: wsh@chollian.net (p)홍신, @hanori(현리인)

다큐멘터리 제작공동체 장수하늘소
전화 02-722-5662
e-mail: doc.sky@chollian.net

꿈에 관한 보고서

Our Dream of Healing
A Documentary on Sex Trafficking in Korea

- ▶ 제작 :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 후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다큐멘터리 〈꿈에 관한 보고서〉는 어느 사창가에 모여 사는 매춘 여성들의 일상과 꿈에 관한 기록입니다.

■ 제작일지

여광장에서 두번째 공개기획회의가 열리던 날, 하늘은 금방이라도 장대비를 쏟아 내듯이 잔뜩 찌푸려 있었다. 부추 부침개며 소주를 늘어 놓으니 누군가 젓가락만 두들기면 질런 술판이 될 것 같다. 모임이 시작되자 수정은 첫번째 회의 때의 수첩을 들고나와 자신의 의견을 내 놓는다. 소연은 말삼아 키우는 이슬이가 OO광장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는 게 마냥 보기 좋은가 보다. 회의 시작전만 하더라도 그 작은 몸에 어울리지 않는 큰 눈을 또렷또렷 뜨고 있던 자옥이가 점점 약에 취해갔다. 영업 준비로 약을 털어 넣고 나왔다가 분위기에 취해 한잔 마신 술기운이 술금 밀쳐 몰라온 모양이다. 점점 말의 힘을 잃어가는 자옥이가 열심히 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수정의 말 한칸으로 중얼중얼 제 소리를 뇌까린다. "근데, 근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또 이거 해야 되잖아." (99년 9월 6일)



물빛 꿈을 간직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조심스레 가꿔온 꿈들이 남아 있다. 소연은 분식집을 차리고 싶어하고 자옥은 공부와 하고 싶고, 숙현은 연서포를 쓰고 싶어하는 물빛 꿈들이다. 그 꿈을 위해 모두들 한걸음 내딛고 있다."

■ 강자옥(44세)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척집에 보내져 생활했다. 19살부터 시작된 매춘생활은 어느덧 스물 다섯 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약에 취하지 않으면 '돈을 천만큼 준다해도' 버틸 수가 없다는 자옥은 앞으로 2~3년만 이 생활을 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다.

■ 임수정(41세)

'얼마'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 담아두고 사는 수정은 비록 매일같이 약을 털어 넣으며 밤거리로 나설지언정, 어린시절 자신을 내쳐버렸던 가족들을 돌보고 또한 장애인을 돕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

■ 안소연(36세)

고아원에 맡겨진 소연은 마치 퍼즐맞추기처럼 어린시절의 기억을 드문드문 떠올릴 뿐이다. 티켓다방, 방석집, 사창가에 이르기까지 십 여년을, 매일같이 하루의 반을 넘기는 중노동에도 점점 늘어만가는 빚더미에 눌려 그만 자신의 삶을 저장장한 그는 '아슬아'라는 강아지를 가족 삼아 하루하루 살아간다.

■ 김숙현(35세)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남의 집 살이, 공장시대로 일을 했다. 매매춘 현장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맨발로 뛰었고, 지금은 공공근로를 하며 새로운 삶을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다.

■ 강명희(27세)

열 여섯의 나이에 아버지 뺀 뒤는 남자들의 성적 학대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사창가를 탈출, 아내와 두 아이의 여전한 어머니로서 '만족할 만한' 생활을 시작했지만 십년 후 차용증을 갖고 나타난 포주의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 이현정(26세)

'동통학교'에서 1등도 못하는 '구제불능'이라는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에 눈물을 삼키며 방직공장으로 갔다. 현정이 부친 돈은 언니들의 혼수장안에 쓰여졌다. 이후 티켓다방을 전전하던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세상과 남자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증오 뿐이었다.

매·매·춘 누구도 이것의 마침표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꿈에 관한 보고서>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매춘이 사라지는 세상 - 그래도 가야할 그 길에 대해서.



■ Synopsis 1

여성들은 이 작업을 함께하며 물빛을 담아 갔다. 달리는 걸음으로 조심스레 첫 제작위원회에 참여하던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쏟아내는 것들은 텔레비전이나 소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속 시원히 드러내지 못하던 얘기들이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비수처럼 내뿜는 따가운 눈길과 경찰의 단속 대상이지만 허던 그들이 제 목소리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성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내며 마치 제 몸에 누더기로 남아 있는 낡은 옷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어내는 듯 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참으로 많은 꿈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끝없는 길로 쫓겨 내몰리거나, 목구멍에 무언가 딱 막혀 있어 살려달라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그런 꿈속에서도 단골왔다는 포주의 말 한마디에 벌떡 잠에서 일어나는 꿈. 여성들은 그렇게 꿈속에서조차 매매춘의 일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카메라에 잡힌 그들의 모습은 더러운 청년, 불법 유흥행위의 주변, 타고난 '끼' 때문에 사창가로 흘러 들어간 '그런 여성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로 어린 시절 꿈 많던 소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 Synopsis 2

윤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수정은 매춘생활에서 버는 돈으로 사회단체에 후원을 하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다 쓴다. 자옥은 약이 없이는 지금도 낯선 남자들의 숫자학을 잡아 끌 수 없노라고 답답히 얘기한다. 술자리와 길거리의 남자들은 말한다. '끼'와 '게으름' 때문에 매춘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동정의 가치가 없다고. 그들이 방석집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소름 안주 삼아 소주를 털어 낼 때 소연은 이런 남성들에게서는 돌을 수 없었던 많은 얘기를 쏟아낸다.

다큐멘터리 <꿈에 관한 보고서>는 우리의 '언니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킨 사회구조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남성의 배설구로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는 사회구조, 현실에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법, 불법이라는 안전망을 이용해 갖은 안권유린과 성착취로 자신의 배를 싹피우는 업주와 그에 기생하는 직업소개소, 단속을 빙자해 뇌물을 가로 챙기며 매매춘을 방치하고 있는 경찰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릇된 남성중심의 성문화까지, 저당 잡힌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또다시 그들이 걸었던 길을 되돌아하고 있는 우리의 실태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매매춘 현장에서 억울과 그 안에서도 실낱같은 꿈을 붙들고 사는 또 다른 '우리'가 있기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나는 소리치는데 많은 안 나오는 거야. 목에는 고무같은 게 막혀 있는데 담기면 놀아나기만 하고 빠지지 않는 거야."



총제작자위 이옥정
기획 염상미 유대희
구성 박미선
촬영 김양래 김민정 김민중
음악 문대현
연출 김양래 김민정
제작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